

【논 문】

러일전쟁과 만한문제의 국제화, 1905-1912* - 4국양탕트와 연계하여 -

김 원 수**

┃ 차 례 ┃

1. 서언
2. 러일전쟁, 외교혁명과 국제질서의 재편성
3. 4국양탕트와 만한문제의 국제화
4.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는 러일전쟁이후 발생한 만주문제와 한국문제를 1907년에 구축된 4국양탕트(the Quadruple Entente)와 상호작용성이라는 관점에서 재조명하여, 동북아시아를 둘러싼 국제관계의 전후 맥락을 재구성한 것이다. 먼저 러일전쟁이후 외교혁명을 통해 구축된 4국양탕트 체제와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변화를 다루었다. 이는 일본의 만한정책이 러일전쟁의 사후처리라는 관점보다는 1907년의 외교혁명으로 구축된 4국양탕트와의 상호 작용성이라는 관점에서 재조명하려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정미7조약과 헤이그밀사사건, 고종퇴위와 간도협약 전후의 국제관계와 4국양탕트와의 상호작용성을 다루었다. 이로서 청의 헤이그중재재판 회부기도, 간도와 만주문제에 대한 청일협약과정에서 4국양탕트와의 연동성을 밝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병합 전후의 국제관계와 4국양탕트와의 상호 작용을 다루었다. 일본의 한국병합에 관한 영국과 일본의 사전접촉, 그리고 병합이후 한국조항을 삭제

* 이 글은 2013년 10월 26일, 만주학회의 추계 국제학술대회에서의 발표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서울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역사학(국제관계사) 전공

한 3차 영일동맹이 미영중재재판조약 및 제3차 러일협상과 상호 연계됨을 밝혔다. 이같은 국제관계를 통한 글로벌한 역사접근의 시도는 기존의 중심 담론들을 넘어서, 다계적이고 다원적인 해석의 장을 제기함으로써, 한반도, 나아가 동아시아 중심의 글로벌한 국제관계사 연구의 지평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주제어 : 간도문제, 간도협약, 그레이트 게임, 글로벌히스토리, 러일전쟁 러일협약, 외교혁명, 4국양탕트, 독미청동맹, 만한문제, 루트-다카히라 협정, 일본의 한국병합, 제3차영일동맹, 미영중재조약.

1. 서언

러일전쟁은 단순히 러일 양국만의 전쟁이 아니라, 구미열강의 국제관계와 연동된 국제전쟁(international war)이었다.¹⁾ 즉 러일전쟁 이전에 국제관계의 중심은 유럽협조체제에 있었지만, 점차 동아시아에서도 하나의 중핵이 수렴되었고, 거기에서 독자적으로 확산되어 러일전쟁시기에 현저한 특색이 나타났다. 따라서 러일전쟁이후 국제정치의 판도는 유럽, 중·근동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국제관계에 의해 좌우되었는데, 유럽의 협조체제(concert of europe)와 동아시아의 4국양탕트(the Quadruple Entente), 두 중심의 상호작용에 따라 전개되었다.

특히 러일전쟁이후 세계 질서의 재편성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 및 일본 간에 1904년과 1907년에 체결된 일련의 협정들로 마무리되었다. 이는 20세기 초 국제관계의 외교혁명(Diplomatic Revolution)이라 일컫는 변화로서, 1904년의 영불협상과 1907년 여름, 일불협상, 제1차 러일협상 및 영러협상이 연이어 체결됨에 따라 완결되었다. 존 알버트 화이트(John Albert White)는 이것을 일본을 뺀 삼국협상(the Triple Entente)으로 부르기 보다는, 더욱 명확하고

1) 김원수, 1989, 「러일전쟁과 국제관계의 변화」, 『수선사회』 4, 서울교육대학 사회과교육과, 76쪽.

완전한 묘사로서 4국양탕트라고 명명하였다.²⁾ 물론 러일전쟁 자체가 영불협상과 영러협상을 초래한 것은 아니지만 이로 인해 조성된 「무장된 양대진영Two armed camps」 체제는 이후 세계대전의 一因이 되었다.³⁾ 영일동맹과 러불동맹국이 결집한 4국양탕트는 유럽에서는 삼국협상국의 대독 포위망, 그리고 아시아·태평양에서는 일본의 獨走와 대미견제를 가능케 하였다. 하지만 이 체제는 동시에 독일의 독·미·청동맹구상, 미국의 만주개입에 따라 미일대립이 생겼고, 러일협력의 제휴관계를 낳았다. 또한 미일의 참여한 대립은 영국으로 하여금 장차 미일전쟁이 일어날 경우 일본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방향을 택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이 4국양탕트 체제를 글로벌한 시각에서 접근해 보면, 그것은 러일전쟁 이후 일본의 제국화 과정에서 제 3차 한일협약, 간도 진출기도, 간도협약, 제2차 러일협약, 일한병합 뿐만 아니라, 병합이후 제3차 영일동맹, 미영중재조약 및 제3차 러일협약과도 긴밀하게 연동되고 있음이 확인된다.⁴⁾ 이같은 역사적 사실은 전후 동아시아 국제관계에 영향을 준 영러대립, 미국과 독일의 성장과 팽창 및 제국주의 열강의 새로운 동반자가 된 일본의 역할에서 기인된 것이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일전쟁과 만한문제를 다룬 기존의 국내외 연구들을 살펴보면, 그레이트 게임의 영러대결이나 4국양탕트와 연계하여 접근한 연구는 아직까지도 미진하다.

여기에는 러일전쟁 이후 국제정치의 전개과정에 있어서 만한문제는 유럽의 발칸문제나 아프리카의 모로코 문제보다는 의미가 약화되어 주된 논제로 설정하기 어렵다고 하는 기존의 국제정치적 시각의 영향도 간과될 수 없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러일전쟁을 동아시아에 한정된 차원에서 보다는 오히려 제1차 세계대전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세계사

2) White, John A. 1995, *Transition to Global Rivalry—Alliance Diplomacy and the Quadruple Entente, 1895-1907*, Cambridge.

3) Palmer, A. *The Chancelleries of Europe*, George allen & Unwin, 1983, p.208.

4) 김원수, 2009, 「4국협조체제와 간도협약의 국제관계, 1907-1909」, 『동북아역사논총』 26, 동북아역사재단; 김원수, 2010, 「4국협조체제와 한일병합의 국제관계, 1907-1912」, 『동북아역사논총』 29 동북아역사재단.

적 사건으로서 고찰하려는 역사담론들도 적지 않다.⁵⁾ 즉 유럽의 화약고인 발칸반도의 불안정이 세계대전의 발발로 연결되었다고 일반적으로 논하고 있지만, 글로벌한 관점에서 보면 발칸의 화약고에 불을 부친 긴 도화선은 동북아시아의 만한문제에서 발단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⁶⁾

본고는 러일전쟁이후 만한문제를 둘러싸고 전개된 일본과 4국양탕트의 상호 관계를 Global Power Politic의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그 상호작용성의 역사적 맥락화를 시도해 본 것이다. 이를 통해 전후 한반도, 간도와 만주의 현안문제는 한·중·일 3국간의 트랜스내셔널한 이슈였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지역적 차원을 넘어선 구미 열강의 세계정책과 연동된 전지구적 차원의 문제였음을 재구성하였다.

2. 러일전쟁, 외교혁명과 국제질서의 재편성

러일전쟁이후 국제질서 재편의 단초는 開戰直後 공식화된 영국과 프랑스의 제휴와 戰爭終結後 표면화된 영국과 독일의 대립에 있었다. 나아가 새로운 전략적-정치적 구조의 성립에 있어서 원동력은 독일과 일본, 그리고 긴 안목에서 본다면, 지역 열강 및 세계열강으로서 미국의 출현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이같은 재구성을 주도한 것은 영국이었다.

영국과 프랑스는 19세기 말까지 식민지쟁탈전으로 대립하였으나, 아프리카의 파쇼다 사건(The Fashoda Incident)을 계기로 양국관계는 호전되었다. 영불 친선관계는 에드워드 7세의 즉위와 랜스다운 외상의 등장 이후 본격화되어

5) Lieber, Keir A. 2007. "The New History of World War I and What It Means for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International Security*, Vol.32, No. 2, pp. 155-191; Steinberg, John W, Menning, Bruce W. Van Der Oye, David Schimmel penninck and Wolff, David ed, 2005, *The Russo-Japanese War in Global Perspective : World War Zero*, Boston.

6) 김원수, 2013, 「영국의 외교정책과 글로벌전략의 형성」, 『서양사학연구』 28, 한국서양문화사학회, 195쪽; 김원수, 2009, 「글로벌히스토리과 러일전쟁연구의 지평확대-압록강위기와 의 재접속-」, 『서양사학연구』, 한국서양문화사학회.

1903년 5월, 에드워드 7세가 프랑스를 방문하고, 7월, 프랑스 대통령 루베가 답례로 런던을 방문하였다. 동년 가을부터 시작된 양국의 외교 교섭은 러일개전 2개월 후인 1904년 4월 8일, 영불협상(Entente Cordiale)으로 결실을 맺었다.⁷⁾ 이것은 양국의 식민지 세력범위를 조정하고, 현상유지를 도모한 것으로서, 영국이 이집트에서, 프랑스가 모로코에서 우월권을 상호 승인한 것이었다. 이같은 보증을 통해 프랑스는 모로코정부에게 내정개혁안을 제출하고 관세수입을 담보로 고을의 차관을 강요하는 등, 모로코의 독점적인 지배권을 확보하였다. 영불협상은 형식적으로 군사동맹은 아니지만, 글로벌한 규모의 세계정책을 추진하는 독일을 목표로 한 영불제휴는 궁극적으로 군사적 협력을 결과할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영불협상에 대해 독일의 이의가 제기된 것이 1905년의 제1차 모로코사건이었다. 독일의 빌헬름 2세는 요트로 지중해를 향해 중, 1905년 3월 31일, 돌연 모로코의 탕헤르에 상륙하여 술탄과 회견하고 모로코 왕국의 독립과 문호개방의 유지를 요구하였다. 이에 힘을 얻은 술탄은 프랑스에 강경대응하고, 독일은 모로코문제에 관한 열국회의의 개최를 요구함에 따라 불·독 관계는 긴장되었다. 대독강경파인 델카세(Théophile Delcassé)외상은 영국의 지원을 과신하고 대독개전을 주장하였지만, 정부는 전쟁의 모험보다는 델카세를 사직시키고 국제회의의 길을 택하였다. 그 외중에 포츠머스강화교섭이 개시되기 직전인 1905년 7월 24일에 빌헬름은 핀란드의 뵘르케(Bjorko)에서 니콜라이 2세(Nicholas II, Николай Александрович Романов)와 회견하여 영국에 대해 양국의 단결을 도모하고, 제 3국의 공격에 대비하여 상호 원조하는 密約에 조인하였다. 그러나 뵘르케 밀약은 독려 양국의 수상 빌로우(Bernhard von Bülow)와 빠타테(Sergei Yulyevich Witte)가 반대함으로써 발효되지 못하였다.

모로코위기의 해결을 위한 국제회의는 러일전쟁 종결 후인, 1906년 1월

7) 크리스토퍼 하워드 저, 김상수·김원수 역, 1995. 『대영제국의 영광스런 고립』, 한양대학교출판원 : Edward, E. W., 1940, "The Japanese Alliance and the Anglo-French Agreement of 1904" *Historical Review*, vol. IX, No. 1, p.20.

16일, 스페인의 알헤시라스(Algeciras)에 12개국이 모여 개최되었다. 독일은 외교적으로 열강의 포위망에 놓인 것을 직감하였다. 영국의 프랑스 지지는 당연한 것이었고, 삼국동맹국의 이탈리아는 이미 1900년의 불이협상에 의해 북아프리카의 트리폴리 점령을 지지하는 약속으로, 모로코에서 프랑스의 우월권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독일을 직접적으로 지지하지 않았다. 더불어 동맹국 오스트리아-헝가리도 독일 지지에 미온적이었다. 미국은 독일의 문호 개방주의에는 원칙적으로 異議는 없었지만, 그것이 단순하게 독일 지지로 이어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 역시 프랑스를 지지하는 것은 러불 동맹국으로서 당연하였다. 따라서 1906년 4월 7일, 모로코왕국의 독립과 문호개방의 원칙이 확인되어 프랑스의 진출이 묵인됨에 따라 독일은 외교적으로 패배하였다. 알헤시라스에서 열세에 몰린 것은 바로 독일이었다.⁸⁾ 따라서 회담결과, 독일은 고립되고 도리어 영국과 프랑스의 유대관계가 강화되는 꼴이 되고 말았다. 이제 독일은 1890년대 중반부터 누려왔던 유리한 외교적 지위가 위협받고 있음을 결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독일 내에서는 다시 전쟁의 불가피성을 언급하기 시작하였다⁹⁾.

이처럼 러일전쟁과 모로코위기를 거치면서 유럽에는 독일의 전쟁불가피성을 언급하는 태도변화로 조성된 긴장과 전쟁 위기가 있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영려접근, 즉 영려협상의 기원이 있었다. 당시 이같은 독일의 움직임에 대처하여 영국 육군은 1906년 1월까지 활발히 유럽에서 전쟁에 대비하였는데, 그것은 1815년의 워털루 전투(Battle of Waterloo) 이래로 처음있는 일이었다. 약 10만 군대가 프랑스 또는 벨지움에서 독일과의 전투를 위해 急送토록 구상되었다. 한편, 이에 비해 인도에 대한 러시아의 위협에 대한 우려는 1905년 혁명의 충격에서 회복되는데 수년이 걸릴 것이라는 인식 때

8) Bartlett. C. J., 1984, *The Global Conflict 1880-1970 : The International Rivalry of the Great Powers*, Longman, p.49.

9) Langhorne.Richard, 1981, *The Collapse of the Concert of Europe : International Politics 1890-1914*, Macmillan, p.26. Langhorne 교수는 독일의 영국에 대항하는 이러한 조치의 실패는 Free hand 정책이 더욱 Empty hand를 가지게 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문에 다소 경감되었다. 이 시기에 영국외무성에는 반독그룹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같은 움직임은 에드워드 그레이(Edward Grey)의 외상 임명을 계기로 더욱 강화되었다. 이러한 恐獨意識은 독일의 산업화와 해군력의 팽창에 따른 건함경쟁과 독일내 반영감정의 확산 때문이었고, 그것들은 러일전쟁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영국의 대러관계 개선의 주된 동기가 되었다.¹⁰⁾

반면 러시아는 영국의 경우와는 달리, 러일전쟁이전에는 아시아에서 영국과 타협할 분위기에 있지 않았다. 도미니크 리벤(D.C.B. Lieven) 교수는 이에 대해, 「러일전쟁이전 러시아 정부의 주된 관심은 극동이었고 주경쟁 상대는 영일동맹이었으며, 1904년의 도거뱅크사건(The Dogger Bank incident, the North Sea Incident)은 영국과 러시아 제국 간에 전쟁일보직전 상태까지 몰고 갔다,」고 논하고 있다.¹¹⁾ 당시 짜리 니콜라이는 영국인을 유태인과 동격에 놓을 정도로 반영주의자였다. 한편 람스도르프(V.N.Lamsdorf) 등 일부 각료들은 중동지역에서 러일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압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 시장을 자력으로 보존하기를 희망하였다.¹²⁾ 이것은 테헤란의 확보를 통하여 쏘페르시아를 통치할 수 있다는 당시 페테르부르크에 풍미하던 신념에서 기인된 것이었다. 따라서 러일전쟁기에도 중앙아시아에 관한 영·러협상의 전망은 결코 희망적이지 않았다.¹³⁾ 오히려 러시아의 궁정과 군부 및 보수집단은 영국보다는 독일 또는 오스트리아-헝가리와의 접근을 선호하고 있었다. 당시 러시아의 보수집단들은 외국차관의 확보만이 전쟁 패배 이후의 러시아 육군을 재건할 수 있으며, 러시아 혁명으로 입헌주의당파가 얻었던 영향력을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었다.¹⁴⁾ 따라서 전후 러

10) Bridge, F.R., & Bullen, Roger, 1980, *The Great Powers and the European System 1815 - 1914*, Longman. p.158.

11) Lieven, D.C.B., 1983, *Russia and the Origins of the First World War*, Macmillan, p.28 ; Schwartz, Wills George, 1932, "Anglo-Russian Rivalry in the Far East 1895-1905" *Studies in the Social Science*. vol x No 2, University of Iowa. ; Jelavich, Barbara, 1974, *St. Petersburg and Moscow Tsarist and Soviet Foreign Policy 1814-1974*, Indiana, pp.252-253.

12) Abramsky. C(ed), 1974, *Essays in Honour of E.H. Carr*, Macmillan, p.102.

13) Kazemzadah, Firuz, "Russia and middle East", Ledere.I.J, 1962. *Russian Foreign Policy -Essays in Historical Perspective*. Yale University press. p.517.

시아의 재정 복구를 위해서 프랑스는 주요 채권자로서 입장을 유지하였다. 1906년 1월의 알헤시라스회담에서 독일에 대항하여 러시아와 프랑스가 공조하였는데, 영국에게 우호적인 발언의 기회를 주라고 러시아를 고무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¹⁵⁾

이같은 영·러의 반독경향에서 양국은 합일점을 찾을 수 있었고, 러시아의 재정난과 프랑스의 외교적 압력에 영향을 받아 마침내 1906년 6월 7일, 영·러 교섭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3개월 후, 재상 코코프초프(Kokovtsov)는 러시아가 좀 더 값싼 대외정책을 고안할 것을 주장하였고, 수상 스톨리핀(Stolypin)과 외상 이즈볼스키(Izvolsky)도 같은 입장에서 아시아에서 보다 신중하게 분별있게 행동하였다. 그것은 당시 페르시아가 정치적으로 안정되었지만, 러시아로서는 국내외 위기를 대처하는데 있어서 군사적으로 확신할 수 없었고, 또한 독일의 바그다드 철도 건설 및 통상 활동이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대내외적으로 취약한 여건 때문에 일정 기간 아시아에서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러시아의 힘을 공고히 하자는 논조들이 압도적이 되어 갔다. 그것은 오직 영국과의 대립보다는 영국과의 협조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었다. 이에 이즈볼스키는 극동보다는 근동에 더욱 관심을 가지기를 바라고 있었고, 영러접근은 독일과 오스트리아-헝가리와의 위기만 없다면 가능할 것이라 믿고 있었다.¹⁶⁾

한편 영국에서는 영·러 접근에 대해 찬·반이 엇갈리고 있었다. 에드워드 7세와 그레이는 찬성하였지만, 자유당의 캠벨-배너만(Campbell-Bannerman) 수상은 공공연히 비난하였다.¹⁷⁾ 특히 군부는 일본의 승전 및 제 2차 영일동맹을 통하여 문서상으로 인도 변방방위의 보장을 포함하게끔 영일동맹의

14) Abramsky.C. 앞의책, pp.102-105; Bartlett, 앞의책, p.51.

15) Kazemzadah, Firuz, 앞의책; B.F.Oppel, 1972. 'The waning of a traditional alliance, Russia and Germany after the Portsmouth Peace Conference', *Central European History*, vol. 5, Atlanta, pp.318-329; Abramsky.C. 앞의책; Bartlett, 앞의책.

16) Kazemzadeh, 1928, *Russia and Britain in Persia 1864-1914*, Yale University, p.82.

17) Albrecht-Carrie, Rene. 1973, *A Diplomatic History of Europe since the Congress of Vienna*, New York. 김영식·이봉철 역, 1982, 『유럽외교사』 상, 까치, 263쪽.

군사협력범위를 확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영·러 접근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인도를 공격할리는 없다고 할지라도, 러시아의 중앙아시아철도의 존재가 불안정한 상태로 남아있는 한, 영국에게는 러시아가 인도 서북국경 방어의 위협이 되기 때문이었다.¹⁸⁾ 또한 대외적으로 독일 해군의 계속되는 도전을 해결해야하는 당면과제가 있었다. 특히 독일은 근동과 중동에서 경쟁자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베를린-바그다드 철도는 더 이상 러시아에 대한 안전장치가 될 수가 없었다. 따라서 독일과의 경쟁은 영국의 대러협상에서 영국측 이해의 배후에 숨어있는 하나의 동기를 형성하고 있었다.¹⁹⁾ 하지만 실제로 영국 내에서 러시아와의 협상에 만장일치한 적도 없고, 러시아에서도 협상에 열광한 적도 거의 없었다. 대부분의 러시아인에게 그것은 1905년 러일전쟁과 러시아 혁명에 의해 자국에게 강요된 유감스럽지만 필요한 일(a matter of regrettable necessity)²⁰⁾이었을 뿐이었다.

1907년 8월 31일, 페테르부르크에서 외상 이즈볼스키와 영국전권 아더 니콜슨(Arthur Nicholson)간에 영러협정이 조인된 결과, 페르시아는 3지역, 즉 북부의 러시아, 남부의 영국, 중간의 중립지대로 분할되었다.²¹⁾ 그리고 러시아는 페르시아 만과 아프가니스탄, 영국은 티베트에서 상호 이권을 인정하였다. 이로 인하여 영·러 양국은 국지적 분쟁을 해결하고 전지역에 걸쳐 상호 제휴와 협조의 길을 모색하였다. 영러협상은 이미 결성된 러불동맹 및 영불협상과 연계되어 삼국협상을 형성하고 마침내 독일·오스트리아·이탈리아의 삼국동맹과 상호 대치하는 「무장된 양대 진영」이 대두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²²⁾

18) Towle, Philip, 1980, "The Russo-Japanese war and the Defence of India," *Military Affairs*, October, pp.114-115.

19) Kazemzadeh 교수는 「러시아는 1907년 협정에서 스스로 부과한 구속 때문에 이후 3년 동안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하며 Shuster 사건을 선택하고 있다.(Kazemzadeh, *Russia and middle east*. p.519.

20) Bartlett, 앞의책, p.52.

21) Mehra Parshotom, 1979, *The North-eastern Frontier. vol.1. 1906-1914*, Oxford University Press, pp.4-8.

22) Churchill, R.P, 1939, *Anglo-Russian Convention of 1907*, The Torch Press : Tompkin. Ros mary,

이같은 무장된 양대 진영의 국제시스템은 제1차 세계대전까지 지속되었고, 세계는 끊임없이 국제적 위기에 직면하였다. 아프리카에서의 1,2차 모로코위기, 발칸에서의 보스니아 위기와 발칸위기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위기도 그 하나였다. 그것은 러일전쟁이후 동아시아의 위기, 즉 한반도와 연계된 만주를 중심한 전쟁위기였다. 이 위기는 만한문제가 전후 4국양탕트와 구축됨에 따라 유럽협조체제와 연동되고 있었다. 따라서 동북아 문제는 지역적 차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지구적차원의 문제가 되고 있었다. 그렇다면 4국양탕트는 만한문제와 동아시아의 국제관계와 어떻게 상호 작동되고 있었는지 살펴보자.

3. 4국양탕트와 만한문제의 국제화

기실 포츠머스조약 체결이후, 일본은 1905년 11월 7일, 불법적인 을사늑약을 통해 대한제국을 보호국화하고, 동년 12월 22일의 청일조약 체결로 기존에 러시아의 만한철도이권을 탈취하고, 곧이어 관동도독부의 설치, 남만주철도주식회사의 설립 등의 만주선점조치를 취하였다. 그것은 일본으로서 는 러시아의 복수전을 대비하는 한편, 러일전쟁으로 확보한 한반도와 만주의 權益을 현실화하는 상호보완적 조치였다. 이에 영국, 미국과 독일은 즉각 대응하였다. 1906년 3월19일, 주일영국공사 클로드 맥도날드(Claude MacDonald)와 26일의 주일미국대리공사 헌팅톤 윌슨(Huntington Willson)의 대일 항의 및 카이저(Kaiser)의 주독중국대사 잉쇼우(蔭昌)을 통한 양탕트 타진 조치가 바로 그것이었다.²³⁾

이같은 구미의 대일견제에 대해 일본은 대러 접근이라는 외교적 수단을

1975, *Anglo-Russian Diplomatic Relations 1907-1914*, Denton Texas. PhD.Dis.

23) 馬場明, 2003, 『日露戰爭後の滿洲問題』, 東京: 原書房, 1-20쪽; 日本外務省編纂, 昭和 31, 『日本外交文書』 第39卷, 1册, 日本國際聯合協會刊, 195-199, 204-212, 212-213, 219-220項 (以下 『日本外交文書』 39-1, 195로 略함).

강구하였지만 러시아는 한국문제에 관한 한, 1906년 초반까지는 일본과 대립하고 있었다. 그것은 러시아가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한국을 공식 초청하여, 을사늑약의 불법성 및 대한제국의 국제적 지위를 헤이그평화회의에서 제기하여, 한국문제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공론화하려고 하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일본은 제2차 영일동맹(1905)의 3조를 통해 영국으로부터 한국에 대한 지도(guidance), 감독(control), 보호(protection) 조치를 취할 권리를 승인받고 있었다.²⁴⁾ 당시 영국은 만주와는 달리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 일관되게 일본의 한국보호국화를 지원하였고, 이를 통해서 동아시아에서 러시아 견제정책을 유지했다.²⁵⁾

그러나 1906년 개최된 알헤시라스 국제회의를 전후하여 분위기는 반전되었다. 동년 4월의 알헤시라스회의에서 독일이 외교적으로 고립되고, 영국, 러시아, 프랑스 간의 협조가 모색되었기 때문이었다. 그 여파는 한국문제에 파급되었다.²⁶⁾ 이와 관련해서 동년 6월, 맥도널드공사는 보고하기를, 러시아 정부가 최근에 일본과 보다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러시아 정부는 처음 단계에서는 한국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초대했으나, 일본의 반대로 즉각 초대를 철회하였다고 전하였다. 실제로 1907년 6월 15일에 헤이그 평화회의가 개최되었을 당시, 영러, 러일, 일불 간의 외교 교섭은 타결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러시아는 더 이상 한국문제를 거론할 필요가 없었다. 6월 29일의 헤이그밀사의 참가거부는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후 7월 19일, 고종의 양위에 이어 23일, 일본 내

24) Wood, G. Zay. 1921. *China, the United States and the Anglo-Japanese Alliance*, Fleming H. Revell Company. pp.150-153. 1905년 8월 12일 런던에서 하야시와 랜스다운 간에 작성된 조약본문 제 3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본국은 한국에서 정치상, 군사상 및 경제상의 탁월한 이익을 가지므로 영국은 일본이 이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정당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도, 감리 및 보호의 조치를 한국에서 취할 권리를 승인한다. 단 해당 조치는 항상 여러 나라들의 상공업에 대한 기회균등주의에 반하지 않을 것을 요한다.」

25) 片山 慶隆, 2005. 韓國保護國化をめぐる國際關係史 1902-05 : イギリスの對韓・對日政策を中心として, *Discussion Paper Series 008*, Center for European Research, 21th Century COE Programme.

26) Memorandum communicated by Japanese Charge' d' Affaires. August 10, 1906, No.87405. Confidential. FO.371/179, (22) p.108.

각회의가 제1차 러일협약안을 결정하고, 하루뒤인 24일에 제3차 한일협약이 체결되었다. 또한 이토의 간도파견대 진출계획도 매한가지였다. 원래 1907년 4월 13일로 계획되었지만 7월 30일 러일협약이 조인되고 난 후인 8월 18일에야 결행되었다. 그것은 당시 불·일교섭이 진행 중이었고, 프랑스가 러일교섭을 중재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고로 러일협약이 체결된 후 8월 18일, 한국군대의 해산과 동시에 통감부의 간도임시파출소 개설을 청국에 통보하고, 19일 사이토(齋藤季治郎) 소장이 회령에서 용정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일본의 간도문제를 통한 만주침투가 본격화되었던 것이다.²⁷⁾ 이처럼 일본의 한국 보호국화 강화와 만주독점화 기도와 간도문제는 애초부터 일본의 대리접근과 연동되고 있었던 것이다.

4국양탕트는 이처럼 일본의 한국 보호국화 강화와 만주독점화 기도와 간도문제가 본격화된 1907년 여름에 보다 구체적으로 실체화되었다. 그것은 6월 10일에 불일협상, 7월 30일에 러일협약에 뒤이어 8월 31일 영러협상이 체결됨에 따라 가시화되었다. 이로써 1815년에 나폴레옹이 실각한 이후 러일전쟁이 끝나는 1905년까지, 약 90년간의 그레이트게임(Great Game), 즉 영러대결은 종식되었다.²⁸⁾ 하지만 비서구국가인 일본의 前進의 외교 조치는 궁극적으로는 반독진영에 가입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특히 일본 군부의 적극적인 만한진출 기도는 독일 및 미국, 청국의 우려를 낳고 있었다. 그 틈새를 이용하여 독일은 독미청 3국간에 反日이라는 맥락에서 제휴조건을 찾으려하였다. 1907-1908년과 1910-1911년의 2회에 걸쳐서 카이저가 추진한 독미청 3국동맹구상이 바로 그것이었다.²⁹⁾

27) 김원수, 2009, 「4국협조체제와 간도협약의 국제관계」, p.271.

28) Hopkirk, Peter. 1992, *The Great Game*, Kodansha International : Gillard, D, 1977, *The Struggle for Asia 1828-1914-A Study in British and Russian Imperialism*, Methuen&Co Ltd : 衛藤瀧吉, 2004, 『近代東アジア國際關係史』, 東京大學出版部, pp.83-104.

29) Szippel, Richard F, 1998, Kaiser Wilhelm II and the Attempt to Form a German-American-Chinese Alliance against Japan, *Nanzan Review of American Studies*, Vol 20 : 스티플교수는 루트-다카히라 협정이 독미청 3국동맹 구상을 잠정적으로 저지하는데 '결정적인 타격'(a fatal blow)을 주었다고 논하고 있다.

독일의 독미청동맹을 통한 대일견제조치에 대해 일본은 영일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악화된 일미관계의 개선 조치를 모색하였다. 1908년 11월 30일 체결된 「태평양방면에 관한 일미교환공문」(루트-다카히라 협정)은 독미청 동맹 교섭을 위해 당소외가 워싱턴에 도착하기 전에 미일관계를 개선키 위한 고무라외상의 외교적 선행조치였다. 하지만 이제 일본은 대미관계를 개선한 이상, 만한정책에 있어서 미국의 만주문호개방정책과 연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같은 현실은 러일전쟁 직후 일본이 추진한 만한정책과는 상충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정의 여지가 있었다. 실제로 일본은 루트-다카히라 협정이후, 곧바로 간도문제를 포함한 만주현안문제 타결에 착수하여 1909년 1월초부터 2월 17일까지 6차례에 걸쳐 청일회담을 개최하였다. 이 교섭에서 일본은 간도문제에 대해 영유권 포기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지만 조선인의 법적지배 문제를 둘러싸고 교착상태에 빠졌다.³⁰⁾

이에 청국은 1909년 3월 22일, 청국의 간도문제를 비롯한 만주현안을 헤이그 중재재판에 회부한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일본정부는 영국과 미국 정부를 설득하는 외교 조치를 병행하였다. 이같은 청의 외교 제스처는 일본과의 교섭을 유리하게 전개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실제로 미국과 독일의 만주문제에 대한 개입 가능성을 낳는 것이었다. 즉 중재재판회부문제는 청일의 事案을 넘어서는 국제문제(International Affair)로 간도 및 만주현안을 국제이슈화한 것으로서, 그것은 일본에게는 청일전쟁의 삼국간섭과 견줄만한 외교적 위기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다.³¹⁾ 따라서 일본정부는 戰後 대륙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총체적인 대안이 강구될 수밖에 없었다.

일본이 외교적 위기에 대처한 강구책은 1909년 3월 말부터 5월 중순에 걸쳐 구체화되었다. 그 첫째는, 일본의 한반도병합을 위한 사전조치였다. 둘째는, 만주6안건 교섭을 위한 대청정책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국제사회

30) 김원수, 2009, 앞의 논문, p.278.

31) 김원수, 2010, 「외교혁명과 간도협약의 국제관계」, 『백산학보』 86, 백산학회, 262-263쪽; 『日本外交文書』 42-1. 244-246, 248-249, 262-264 ; The New York Times, March 31, 1909.

의 개입을 우려한 앙탕트체제 강화를 위한 대영, 대러접근 기도였다. 그 최우선 사항은 한반도 강점을 위한 선행 조치였다.³²⁾ 동년 3월 말 고무라외상이 가쓰라수상에게 한국병합 방침안을 건의하고, 4월 10일 靈南坂회담에서 이토통감이 가쓰라, 고무라와 함께 한국 합방에 동의하였다.³³⁾ 그 다음으로, 만주문제, 즉 만주6안건 교섭을 위한 후속조치를 취하였다. 4월 29일, 야마가타 아리모토(山縣有朋)가 「제 2 대청정책」을 작성하여, 가쓰라, 고무라, 데라우치에게 송부하였다. 그리고 만주현안에 대한 제3국의 개입 가능성에 대비하여, 앙탕트강화를 위한 조치로서 우선 영일동맹의 결속력 강화를 모색하였다. 1909년 5월 13일 이토와 맥도널드의 회담 및 가쓰라와 맥도널드의 회견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가쓰라와 맥도널드의 회견에서는 영일동맹 및 중국문제에 관한 일본의 입장이 전달되었다. 일청간에 현안인 1)간도문제, 2)신법철도 문제, 3)경봉철도를 봉천성으로 연장하는 문제, 4)대석교지선문제, 5)무순 인대 탄광문제, 6)철도연선 광산문제, 7)중재재판 附託의 제의 문제, 8) 동청철도 부속지내의 행정권 문제, 9)남만주철도 부속지에 있어서 행정권문제등에 관하여 의견교환이 있었다.³⁴⁾

일본은 이같은 일련의 조치 이후 본격적으로 만한문제의 현안 해결에 박차를 가하였다. 먼저 한국문제에 대해서는, 7월 6일, 일본 각의에서 일한병합을 결정하고, 동월 12일, 기유각서를 체결하여 영사재판관 폐지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다. 뒤이어 한국중앙은행에 관한 한일각서조인, 군부 폐지에 이어 호남의병에 대한 만한대토벌 작전 개시 등의 조치를 단행하였다. 다음으로 만주문제에 대해서는, 만주경영의 주축으로서 안봉철도(안동-봉천)의 개축과 길회철도(길림-회령)부설과 관련하여 8월 6일, 일본이 일방적으로 중국에게 안봉철도 개축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발하였다. 그것은

32) 김원수, 2010, 「4국협조체제와 한일병합의 국제관계」

33) 上担外憲一, 2000, 『暗殺・伊藤博文』, ちくま新書, p.196.

34) Gooth, G. P& Temperley, H.W.V.ed., 1926-1938 *British Documents on the Origins of World War 1894-1914, Vol.VIII*, London : H.M.Stationery Office, 467-470쪽(이하 B.D VIII, 467-470으로 약함) : 鹿島守之助, 昭和 33, 『日本外交政策の史的考察』, 266쪽 : 『日本外交文書』 42-1, 275.

협체인 안봉선을 국제표준궤도로 개축하여 경부선 및 경의선과 연결하려는 것으로서, 戰前에 가쓰라-고무라 체제가 목표한 한반도와 만주를 관통하는 대륙종관철도구상의 후속편과 같은 것이었다.³⁵⁾ 그 다음으로 앙탕트 강화를 위한 對英, 對露접근을 본격화하였다. 6월 14일, 한국통감에서 물러난 이토는 러시아방문을 계획하였지만, 10월 26일, 하르빈 역에서 대한의병 참모 중장 안중근에 의해 저격됨으로서 실패로 끝났다. 반면에 영일의 공조는 금제철도(錦齊, 금주-치치하르)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법을 통해 모색되었고, 신법철도포기를 둘러싼 영일간 논의와 청일간의 교섭결과는 만주5안건에 관한 청일조약문 제 1조에 반영되었다. 간도와 만주현안문제는 1909년 9월 4일 ‘간도에 관한 청일협약’과 ‘만주5안건에 관한 청일협약’체결로 귀결되었다. 이로서 간도영유권은 청국에 양도되고, 한국과 중국의 국경은 확정되었다. 이처럼 간도와 만한문제에는 청·일뿐만 아니라 4국앙탕트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연동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한문제는 종결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일청협약과 간도협약에 나타난 일본의 공격적인 남만주정책이 중국은 물론 미국과 러시아에게 새로운 위협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매우 강경하였다. 간도협약 직후인 1909년 11월 16일, 미국무장관 녹스가 만주철도의 중립화안 제기를 통해 만주문제에 직접 개입하였다. 이 조처는 만주철도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포츠머스강화조약 제7조와 루트-다카히라 협정의 상업상의 기회균등 규정에 의거하여, 남만주와 북만주를 각자의 세력권으로 확보한 일본과 러시아를 축출하고, 국제자본신디케이트를 구축하려는 것으로서, 요컨대 달러외교를 통해 미국이 만주철도 이권을 관할하려는 것이었다.³⁶⁾ 이같은 미국의 노골적인 만주개입조치는 동북아시아에서

35) 김원수, 1998, 「일본의 경의철도부설권획득기도와 용암포 사건」, 『한일관계사연구』 9, 한일관계사학회

36) Honda, Masujiro, 1913, America and Japanese Diplomacy in China, *The Journal of Race Development*, Vol.4, No.2. 131-132쪽; 麻田 雅文, 2012, 「日露關係から見た伊藤博文暗殺-兩國關係の危機と克服」, 『東北アジア研究』 16; Munro, Dana G., 1912, American Commercial Interests in Manchuria.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Vol. 39, China : Social and

제2차 러일전쟁의 위기를 다소 감소시키는 반면, 미일대립을 본격화하였다. 한편 유럽에서의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병합에 따른 전쟁위기가 삼국협상 체제의 전면적인 패배로 이어짐에 따라 4국양탕트의 불안정성이 노출되었다. 특히 러·일 관계개선의 주역인 이즈볼스키가 에렌탈(A.L.von Aehrenthal)과의 교섭실패로 외교적 입지가 축소되고 있었다.³⁷⁾ 이같은 대외 정세의 변화되는 여건은 이 시기 일본 정책당료자들에게도 외교적 위기감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만주문제의 조속한 해결뿐만 아니라 한국강점을 서두르게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³⁸⁾

일본의 대미견제를 위한 케스팅보트는 러시아와 영국이었지만, 러일의 공조가 구체화되었고, 1910년 1월 21일, 러일 양국은 공동으로 녹스의 중립안에 거부의를 표명한 각서를 전달하였다. 이와 더불어 일본은 영국과 접촉하며 한반도 병합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1910년 5월 19일, 주일영국대사 맥도널드는 그레이에게 보낸 전문에서, 일본 외무성에서 보호 정치의 후속편으로 일본의 한국 병합 가능성을 전해 들었고 시기는 아직 미정임을 전했다. 그리고 현재 일본이 러시아와 긴밀한 이해를 위해 노력중이며, 일본외상이 자신에게 이미 1907년의 러일협약에서 러시아가 일본에 의한 최종적인 병합(eventual annexation)을 묵인하였으며, 기타 열강은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언급을 전하며³⁹⁾ 일본의 병합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었다. 이같은 전문내용은 1910년 6월 들어 취해진 일본의 실행 조치들에서 분명해 졌다. 즉 조선에 대한 시정 방침 결정(6/3), 카츠라 수상의 한국병합계획 공포(6/18), 일본식민통치를 위한 특별부서 설치 칙령 반포(6/21), 한국

Economic Conditions, pp.154-168.

37) Steed.Henry Wickham, 1969, *The Hapsburg Monarchy*, NewYork : Howard Fertig. pp.246-289.

38) 필자의 논거와는 달리 모리야마(森山茂德) 교수는 간도에 관한 청일협약에 의해서, 조선 병합을 곧바로 행할 가능성은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사실 고무라외상은 이때 조선의 조급한 병합은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고 논하고 있다(모리야마 시게노리 지음, 김세민 옮김, 1994, 『근대일본 관계사연구-조선식민지화와 국제관계』, 현음사, 263쪽; 森山茂德, 1992, 『日韓併合』, 日本歴史學會編, 吉川弘文館, p.196.

39) B.D VIII, 467-470.

경찰 사무위탁에 관한 일한각서조인(6/24), 이완용의 수상복귀(6/30) 조치가 바로 그것이었다. 이처럼 한일병합 조약이 서명되기 2개월 전에 이미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로 공식 공포되었던 것이다.

이같은 일본의 병합사전조치 와중에 1910년 7월 4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이즈볼스키와 모토노 간에 제2차 러일협약이 체결되었다. 당시 영·불은 비밀협약을 포함한 조약내용을 사전에 통보를 받았다. 이 협약은 노골적인 미국의 만주정책에 대항하여 러일이 공동전선을 구축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로서 일본의 한국병합을 위한 러일간의 문제는 완전히 해소되었다.⁴⁰⁾ 기실 제2차 러일협약 체결 이후, 일본은 곧바로 한국 병합절차를 개시하였다. 7월 23일, 테라우치(寺內正毅)가 서울에 부임하여, 31일 이완용, 박제순 등과 합병문제를 밀의하고, 8월 16일 테라우치는 총리대신 이완용에게 합병조약안을 제시하고, 동월 22일 테라우치와 이완용 간에 합병조약이 조인되기에 이르렀다. 8월 28일, 일본외무성은 한국문제를 검토해 본 결과, 보호통치는 조선의 현 상황에 적합치 않고 국가를 통치해야하는 일본에게 부여된 책임은 한국을 일본제국에 완전히 병합하도록 하였다는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미국의 만주철도중립화 기도는 역으로 만주에서 러일의 제휴를 강화하고, 일본의 한국병합을 결과하였다. 하지만 일본의 한국병합은 이로써 완결되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곧이어 4국양탕트의 주축인 영일동맹을 뒤흔드는 사태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1910년 8월 5일, 태프트 대통령은 영국과의 중재재판조약의 체결을 시도하였다. 당시 미국은 만주철도 중립화의 실패 원인이 영일동맹에 있다고 보고, 태프트는 장차 이같은 문제를 해결키 위해서는 영국과 중재조약을 체결하여 미영전쟁의 가능성을 제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한편 그레이 외상 역시 중재조약을 통해 대미전쟁 위협에서 벗어나 대독일 견제를 위한 자유를 유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40) 千葉功, 2008, 『舊外交の形成』, 勁草書房. p.217; 海野福壽, 2000, 『韓國併合史の 研究』, 岩波書店, p.355, 365; 森山茂徳, 앞의책, pp.248-249; 김원수, 2010, 「4국협조체제와 한일병합의 국제관계」.

하지만 영미간 중재조약체결의 난제는 영일동맹과 중재조약을 어떻게 연계하느냐에 있었다. 이에 그레이는 일본의 동의를 얻어 영일동맹을 개정하고, 미국과의 중재재판조약을 체결할 여지를 만들 것을 고려하였다. 일본정부는 중재조약보다 동맹협약의 개정을 먼저 논의하는 선에서 양보하고, 1911년 7월 13일에 가토와 그레이 간에 제3차 영일동맹이 조인되었다.⁴¹⁾ 동맹 교섭에서, 영국은 일본의 예외조항 설치 요구에 동의하지 않았고, 일본의 국경지역의 특수이익에 대해서도 승인하지 않았다. 반면에 제2차 영일동맹 조항의 한국에 관한 규정과 러일전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한다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하였다.⁴²⁾ 이같은 영국의 외교행보는 일본의 한국병합을 뒤늦게 공식적으로 추인한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 한국에 관한 규정과 러일전쟁에 관한 규정을 삭제 조치는 영국의 한국에 대한 의무조항으로부터 해방을 의미하며 이는 일본보다는 미국과의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유럽에서의 대독저지와 러일의 아시아 독점을 저지하려는 시도였다고도 할 수 있다. 이같은 영국의 대미접근의도가 실체화된 것이 뒤이어 동년, 8월 3일 조인된 영미중재재판조약이었다. 이로서 영국과 미국은 영일의 공동공격에 대한 조약상의 방패를 얻었지만, 미 상원은 이에 비준을 거부하였다.

이즈음 1911년 10월 10일, 신해혁명이 발발하였고, 일본은 새로운 동북아 정세에 대응키 위해, 24일 각의에서 중국정책을 결정하였다. 그것은 만주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일본에게 유리한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 유보하고, 중국본토에 세력을 부식하는데 힘을 주력하며, 만주에 관해서는 러시아와 공동보조를 취하여 일본의 이익을 옹호하고, 영국과는 영일동맹의 정신을 철저히 하는데 노력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러시아와 중국 간에는 외몽고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일본은 이 기회를 이용해 재차 러일협약을 시도하였고 1912년 7월 8일에 사조노프외상과 모토노 대사간에 제3차 러일협약이 조인되었다. 이 협약은 비밀협약만으로서, 만주의 분계선을 내외몽고경계선

41) 『日本外交文書』 44-1, 341-345; 『日本外交文書』 44-2, 369-383.

42) B.D VIII, 404-407.

의 중단까지 서쪽으로 연장하고, 내몽고를 동경 116도 27분에서 동서로 분할하여, 그 동쪽을 일본의 세력범위로 하였다. 이 협약 역시 체결전인 7월 3일, 러일 양국정부로부터 4국양탕트 구성원인 영국과 프랑스에 사전에 통보되었다. 이에 영국은 중국의 독립과 무역상의 문호개방주의를 해치지 않는 한 이견이 없다고 회답하였고, 프랑스정부도 같은 취지로 회답하였다.

이처럼 제3차 러일협약은 만몽을 둘러싼 세력범위를 확정하여 제휴가 강화되고 있었던데 비하여, 영일동맹은 만주, 중국본토에서 일본과 대립하고 있는 미국을 그 대상으로부터 제외하고 있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러일협약이 외교적 협력에 있어서 동맹적 성격을 가지게 된 데 반하여, 영일동맹은 애초의 방어적 군사협력관계의 내용이 없어서 협상과 같은 성격으로 변질되어버렸다. 따라서 미영중재조약의 성립과 제3차 영일동맹의 개정 및 제3차 러일협약의 체결은 동북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영미 양국의 새로운 관계가 성립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반면에, 영일관계가 이전과는 달리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것은 다른 한편, 4국양탕트의 변질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즉 영일/러불동맹을 주축으로 한 4국양탕트를 통해 프리랜드를 누려온 동아시아 지역 열강(Regional Power)으로서 일본과 영·미의 제국주의 세계정책과의 갈등, 충돌이 예견되는 것이었다.

4. 결론

러일전쟁과 포츠머스평화회의는 동북아시아의 잠정적 평화만을 보장하였을 뿐이었다. 을사늑약은 국제법상 무효였고, 이에 근거한 일본의 간도협약은 무효이므로, 기존의 한·청간의 만한변경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계속 남게 되었다. 또한 만주현안문제 역시 일청간의 교섭만으로 종결되지 않았다. 간도협약과 일청협약 직후, 미국은 만주문제에 직접 개입하였다. 미국의 만주철도중립화 기도는 역으로 4국양탕트를 강화시켜, 제2차 러일협약

이 수립되고 일본의 한국병합을 결과하였지만, 오히려 미일간에는 위기가 조성되었다. 러일협약은 일본의 한국 병합 및 남만주에서의 특수이익과 러시아의 북만주 및 외몽고에서의 특수 이익의 상호 인정을 가능하게 하였고, 이로서 만주에서 러일의 세력범위가 규정되었다.

한편 일본의 동맹국 영국은 미국과의 중재재판조약을 통해 전쟁위협을 제거하고, 제3차 영일동맹개정을 통해 동맹의 적용범위를 명백히 한 것은 미일의 대립구도에서 탈피와 러일의 동맹화를 견제한 대국적 조치였다. 하지만 3차 동맹교섭에서 제2차 영일동맹조약의 한국에 관한 규정과 러일전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한 것은, 공식적으로 일본의 한국병합을 승인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었다. 이로서 「외교문제로서 한국 문제」는 종결되었다. 그 결과는 1943년 미국, 소련, 중국의 정상들이 카이로에서 회동하여 대일 군사동맹 구성과 한국독립을 국제적으로 보장하는 카이로선언(Cairo Declaration)이 발표될 때까지 약 40년간 한국의 운명과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결정하는데 있어 심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그것은 다른 한편, 4국양탕트체제의 변질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즉 영일/러불동맹을 주축으로 한 4국양탕트를 통해 프리핸드를 누려온 동아시아 지역 열강(Regional Power)으로서 일본과 구미/영·미의 제국주의 세계정책과의 경계/변경의 변화와 갈등, 충돌이 예견되는 것이었다.

러일전쟁이후 일본은 대륙을 향한 팽창기도를 노골화하였는데, 그같은 기도에는 양면성이 있었다. 즉 한국과 만주에 대해서는 일본의 「주권범위」, 「이익범위」의 안전보장, 권리획득을 위해서 극히 威壓的인 외교를 전개하는 반면, 구미열강에 대해서는 일본의 대륙 정책을 승인받기위해 다원적인 국제관계의 협조 외교를 전개하였다. 전후 일본은 제국주의 열강의 대열에서 아시아의 제국이 되려하였다. 명치제국화를 위한 일본의 만한정책은 4국양탕트의 구축과 서구열강의 동아시아로부터 후퇴, 중국의 내셔널리즘의 고양, 독일과 미국, 특히 후자의 아시아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라는 상황에서 전개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국면의 도전과 반응은 후일의 만주

사변, 태평양전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러일전쟁 이후의 4국양탕트와 파워 폴리틱스의 연구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참고문헌

- 구대열, 1995, 『한국국제관계사연구』 전2권, 역사비평사.
- 김영홍, 1988, 『미국의 아시아외교 100년사-20세기 미국, 아시아관계-』, 신구문화사.
- 김원수, 1989, 「러일전쟁과 국제관계의 변화」, 『수선사회』 4, 서울교육대학 사회과 교육과.
- 김원수, 2001, 「구미열강의 동아시아정책과 한국, 1898-1903」, 『동양학』 31,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 김원수, 2004, 「한국의 러일전쟁 연구와 역사교육의 과제」, 『역사교육』 90, 역사교육 연구회.
- 김원수, 2007, 「글로벌히스토리과 역사들의 지평을 넘어서」, 『서양사론』 92, 한국서양사학회.
- 김원수, 2009, 「4국협조체제와 간도협약의 국제관계, 1907-1909」, 『동북아역사논총』 26, 동북아역사재단.
- 김원수, 2010, 「4국협조체제와 한일병합의 국제관계, 1907-1912」, 『동북아역사논총』 29, 동북아역사재단.
- 김원수, 2013, 「영국의 외교정책과 글로벌전략의 형성」, 『서양사학연구』 28, 한국서양문화사학회.
- 박준규, 1986, 『한반도 국제정치사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 박 보리스 드미트리예비치, 민경현 역, 2010 『러시아와 한국』, 동북아역사재단.
- 배성준, 2008, 「한·중의 간도문제 인식과 갈등구조」, 『동양학』 43, 단국대동양학연구소.
- 역사학회편, 1986, 『러일전쟁전후 일본의 한국침략』, 일조각.
- 은정태, 2007, 「대한제국기 간도문제의 추이와 식민화」, 『역사문제연구』 제 71호.
- 이기백 책임편집, 1996, 「특집-일본의 대한제국 침탈의 불법성」, 『한국사시민강좌』 19, 일조각.
- 이태진외, 2003, 『한국병합의 불법성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 원 철, 2006, 「주변열강의 한반도 문제 협의와 을사조약」, 『역사학보』 192.
- 정성화 외, 2005, 『러일전쟁과 동북아의 변화』, 선인.
- 최덕규, 2008, 『제정러시아의 한반도정책, 1891-1907』, 경인문화사.
- 최문형, 2004, 『국제관계로 본 러일전쟁과 일본의 한국병합』, 지식산업사.
- 최정수, 2000, 『T·루즈벨트의 세계정책』,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크리스토퍼 하워드 저, 김원수, 김상수 공역, 1995 『대영제국의 영광스러운 고집』, 한양대학교출판부.
- 鹿島守之助, 昭和 33. 『日本外交政策の史的考察』, 鹿島研究所.

- 東アジア近代史學會 編, 2008, 『日露戦争と 東アジア世界』, ゆまに書房.
- 讀賣新聞取材班, 2005, 『検証 日露戦争』, 中央公論社.
- 馬場明, 2003, 『日露戦争後 の満洲問題』, 東京: 原書房.
- 麻田 雅文, 2012, 「日露關係から見た伊藤博文暗殺-兩國關係の危機と克服」, 『東北アジア研究』 16.
- 寺本康俊, 1999, 『日露戦争以後の 日本外交』, 信山社.
- 上担外憲一, 2000, 暗殺・伊藤博文, ちくま新書.
- 森山茂徳, 1987, 『近代日韓 關係史研究』, 東京大學出版會.
- 石井修, 2004, 『國際政治史としての 20世紀』, 東京: 有信堂.
- 小林道彦, 1998, 『日本の大陸政策 1895-1914-桂太郎と後藤信平』, 東京: 南窓社.
- 五百旗頭眞, 2008, 『日美關係史』, 有斐閣.
- 外務省編, 1966, 『日本外交年表並主要文書』 上卷, 原書房.
- 外務省編, 昭和 41, 『小村外交史』, 原書房.
- 宇野俊一, 2006, 『桂太郎』, 吉川弘文館.
- 日本外務省編纂, 昭和31, 『日本外交文書』第 39卷, 1册, 日本國際聯合協會刊.
- 日本外務省編纂, 昭和31, 『日本外交文書』第 40卷, 1册, 日本國際聯合協會刊.
- 日本外務省編纂, 昭和31, 『日本外交文書』第 42卷, 1册, 日本國際聯合協會刊.
- 義井 博, 1977, 『カイザードイツの世界政策 と第1次世界大戦-』, 清水書院.
- 衛藤藩吉, 2004, 『近代東アジア國際關係史』, 東京大學出版會.
- 長田彰文, 1992, 『セオテアルズノルトと韓國』, 未來社.
- 千葉功, 2008, 『舊外交の形成』, 勁草書房.
- 川島眞, 服部龍二, 2007, 『東アジア國際政治史』, 名古屋大學出版會.
- 片山慶隆(2005), 韓國保護國化をめぐる國際關係史1902-05: イギリスの對韓・對日政策を中心として, *Discussion Paper Series 008*, Center for European Research, 21th Century COE Programme.
- 平間洋一, 2000, 『日英同盟』, PHP新書.
- 海野福壽, 2000, 『韓國併合史の 研究』, 岩波書店.
- 和田春樹, 2009-2010, 『日露戦争-起源 と開戦』上,下, 岩波書店.
- 黒羽茂, 1987, 『日英同盟 の軌跡』上,下, 文化書房博文社.
- Bartlett, C.J, 1984, *The Global Conflict 1880-1970-The International Rivlry of the Great Powers-*, Longman.
- Churchill,R.P. 1939, *Anglo-Russian Cvention of 1907*, The Torch Press.
- Edwards,E.W.1966, "Great Britain and the Manchurian Railways Question, 1909-1910", *The English Historical Review*, Vol. 81. No. 321.
- Ericson, Steven and Hockley, Allen, 2008, *The Treaty of Portsmouth and its Legacy*, Dartmouth College Press.

- Geiss, I, 1978, *German Foreign Policy, 1871-1914*, Routledge & Kegan Paul.
- Gillard, D, 1977, *The Struggle for Asia 1828-1914-A Study in British and Russian imperialism*, Methuen&Co Ltd.
- Gooth,G.P& Temperley, H.W.V.ed., 1926-1938, *British Documents on the Origins of World War 1894-1914, Vol.VIII*, London : H.M.Stationery Office.
- Hall, L. J. 1929, "The Abortive German-American-Chinese Entente of 1907-8," *Journal of Modern History*, Vol. 1, No. 2.
- Honda, Masujiro, 1913, America and Japanese Diplomacy in China, *The Journal of Race Development*, Vol.4,No.2. 129-133.
- HANSARD, British Interest in Japan and Korea HL Deb 27 March 1911 vol 17 ccb 17-33.
- HANSARD, Railway Enterprise in China HL Deb 08 November 1909 vol 4 cc 535-9.
- HANSARD, British Commercial Right in Korea HL Deb 28 July 1910 vol 19 c 2317.
- Hotta-Lister, Ayako, 2002, "The Anglo-Japanese Alliance of 1911", Discussion Paper No. IS/02/432.
- Langhorne, Richard, 1981, *The Collapse of the Concert of Europe; International Politics 1890-1914*. Macmillan.
- Mehnett, Ute,1996, "German Weltpolitik and the American Two-Front Dilemma; The Japanese Peril in German-American Relations, 1904-1917", *The Journal of American History*, vol.82, No.4.
- Minger, Ralph Eldin, 1925, *William Howard Taft and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 The Apprenticeship Years 1900-1908*, Chicago :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Munro.Dana G.1912.American Commercial Interests in Manchuria.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Vol. 39, China : Social and Economic Conditions, 154-168쪽.
- Nish Ian,H,1966, *The Anglo-Japanese Alliance; The Diplomacy of the Two Island Empires 1894-1907*, The Athlone Press.
- Steed, David, 2002, "The Second Anglo-Japanese Alliance and The Russo-Japanese War", Discussion Paper No. IS/02/432.
- Steed.Henry W,1969,*The Hapsburg Monarchy*, NewYork : Howard Fertig.
- Steinberg, John W, Menning,Bruce W. Van Der Oye, David Schimmelpenninck and Wolff, David ed, 2005, *The Russo-japanese War in Global Perspective; World War Zero*, Boston.
- Szippl, Richard F. 1998, Keiser Wilhelm II and the Attempt to Form a German-American-Chinese Alliance against Japan, *Nanzan Review of American Studies*, Vol 20.

- Thompson, Willie, 1999, *Global Expansion-Britain and its Empire, 1870-1914-*, Pluto Press.
- White, John A. 1995, *Transition to Global Rivalry-Alliance Diplomacy and the Quadruple Entente, 1895-1907*, Cambridge.
- Wood.G. Zay. 1921. *China, the United States and the Anglo-Japanese Alliance* , Fleming H. Revell Company
- Zabriski, 1973, *American-Russian Rivalry in the Far East*, Greenwood.

■ Abstract ■

The Russo Japanese War and the Internationalization of
Manchuria-Korean Problem, 1905-1912
- related with the Quadruple Entente -

Kim, Wonsoo

This article is to reconsider the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Quadruple Entente and the Manchuria-Korea(the Manhan)Problem occurred from 1905 until 1912 with global perspective. This work will be revealed clear that the Manhan Problem was not merely territorial dispute among Korea, China and Japan, but the result of the Quadruple Entente system which has been made by Western Powers and Japan. It was the multiple entente systems. In this research, I specially focused on the interconnection with the Quadruple Entente and the Manhan Problem which was overlooked until now. It will be broaden the horizon of Korean studies and Manchurian Studies in these periods.

After the Russo-Japanese War, Japanese-French Agreement, Russo-Japanese Agreement, and Anglo-Russian Convention were concluded in 1907. This Quadruple system was to bring about the End of "the Great Game". Since then, In East Asia, Quadruple Enetente system based on the Anglo-Japanese Alliance was constructed and In Europe, Triple Entente system were operated. Interaction of Quadruple Entente was forced to threaten and encircled German's Triple Alliance in Europe as well as to restrict the American Expansion from Asian Pacific. Therefore Germany actively took a plan for German-China-American Alliance. Nevertheless, Japan had free hands in Northeastern Asia regions under the British diplomatic assistance. Such an International change in East Asia was able to make shape of realizing Japanese Plans to annex Korea and preoccupy

Southern Manchuria including Gando region from 1907 until 1912.

Therefore Japanese penetration into Korea and Manchuria has been not only influenced by Quadruple entente system, but also controlled by Intervention and Restriction of German and America. Such actions were proved by Kaiser's Plan for German-China-American Alliance Connection from 1907 to 1909, Theodore Roosevelt's Initiative on the Root-Dakahira Agreement in 1908, The Knox's Neutralization Plan for Manchurian railway in 1909. Anglo-Japanese preliminary contacts with Gando and Manchurian problems in 1909 and Anglo-American Arbitration Treaty after the Japanese Seizure of Korea. All these measures were revealed that Japanese Annexation of Korea and preoccupation of Manchuria had been influenced by the Interaction of Quadruple system. It was the Imperial struggle for Reestablishing the sphere of influence in East Asia.

But the Japanese seizure of Korea was not completed. The reason why was that The Aftermath of the Annexation of Korea was to increase the threat of war between America and Japan. It caused by the 2nd Russo-Japanese Convention and the Strengthening of the Quadruple system. Counteraction was immediately taken by Taft administration suggesting the Arbitration Treaty between United State and England. In the aftermath of this, 3th Anglo-Japanese alliance was concluded in 13th, July, 1911. In this treaty, the clauses related with korea and the Russo-Japanese War were eliminated. It was the last diplomatic action for the Korean Problem taken step by Japan and Britain. In these measure, Korean problem was officially completed. In the course, British Entente policy was the unwavering support. But the Conclusion of the Arbitration Treaty between United State and England was to bring about the change of the Quadruple Entente system based on Anglo-Japanese alliance. Now Anglo-Japanese relation was estranged, but Anglo-American diplomatic relationship is renewed. It means that Japan's regional power is to be challenged and power politics in east asia is to be changed.

Key words : Gando Agreement, the Great Game, Diplomatic Revolution, the Quadruple Entente, German-China-American Alliance, Manchurian-Korean Problem, Japanese Seizure of Korea, the Root-Dakahira Agreement, 3th Anglo-Japanese Alliance, The Arbitration Treaty between United State and England.